# 평화와 연대를 우리들의 힘으로

**주무늬**
충남 홍성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3학년

학교 게시판을 보던 중에 '청소년 평화 순례'라는 공문을 보게 되었다. 청소년과 평화!

청소년 지도사와 치료사를 겸해서 일하고 싶은 나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됐다. 고 3 방학이라고 방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필요한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걷는 것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겠다, 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지도 하는 것을 배우겠다, 5·18과 광주에 대해서 알겠다, 붙임성을 기르겠다, 몸과 마음에 평화를 심겠다는 기대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 16일 첫날, 5·18 자유공원

광주에 도착! 광주하면 붉은색이 떠오른다. 광주의 뜨거운 함성. 학살의 피.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나에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부담스럽다. '어떻게 나를 보여주어야 할까? 어떻게 친해져야 하고 헤어질 땐...' 복잡한 걱정을 물리치고 강당에 들어갔다.

박명숙 선생님과 함께 하는 평화놀이가 시작되었다. 각 모둠 별로 색을 정하고 그 색의 좋은 점을 찾는 것이다. 어느 한 색도 절대적으로 좋은 색은 없다.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쟤는 왜 저럴까.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마치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은 다양하고 누구나 귀한데, 자기 편견 때문에 생각을 닫아버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침략이다, 목적이 기름에 있었다, 민간인의 사상이 많았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노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약한 입장을 펴는 것도 재연되었다. 대통령만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다.

전쟁지역의 사진이 있어 관심 있게 보았다. 까맣게 된 하늘을 쳐다보던 어린 눈들이 기억난다. 걸프전 당시 우라늄탄으로 인해 백혈병과 기형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다. 계속되는 약탈과 아픔이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나를 포함한) 너무나도 태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다. 이젠 나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모의법정을 마치고 영창체험의 시간이 있었다. 민중항쟁 당시 고통을 겪으신 아저씨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좁은 영창에서 많은 사람들이 씻지도 싸지도 못하며 괴로운 생활을 해야 했다. 그들은 이렇게 마음을 다지며 이겨냈으리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영창 안에서 들어보니 느낌이 달랐다.

내 마음 속의 울림을 느꼈다. 지금 세상에 있어야 할 새날은 무엇일까? 부끄럽게도 나는 뜨겁게 외치지 못한다. 깨어 있는 순간도 잠시 뿐이다. 큰 세력 안의 작은 저항.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알려 주는 것 같다.

### 17일, 5·18 자유공원 ~ 쌍암공원

힘찬 출발을 했다.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다. 더 힘들겠다는 걱정과 함께 이유 모를 기대가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다. 어째서 옳은 일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답답한 마음에 한탄도 해본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률이 없다가 최근에 고용허가제를 채택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고, 서로를 위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캠페인 활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다. "어려움 가난이 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요~"그들의 노래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18일, 쌍암공원 ~ 국립 5·18 묘지**

피곤한 몸을 이겨내며 일어났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우비를 입고 빗속을 걸어갔다. 앞사람이 간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걷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걷고 있는가. 답이 척 나오지 않아 답답했다. 거기에 네모난 길과 매연을 뿜는 차들은 더욱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걷는다는 것을 통해 겸손과 차분함을 배울 수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웠다가 시민들이 깨뜨려 놓았다는 비석을 밟고 5·18묘지에 들어섰다. 묵념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여기에 묻힌 사람들의 정신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느꼈다. 비를 맞고 불쌍하게 있는 아이들. 어렵지만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겐 힘과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녁에 예술치료를 하시는 김미숙님을 만났다. 모둠끼리 둘러앉아 오늘 자신이 느낀 것,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려볼 수 있었다. 자기 고민을 쓴 아이, 낙서를 한 아이, 자연을 그린 아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음대로 찍찍 긋는 아이들의 모습이 좋았다. 모두들 이 순간만은 행복해 보였다. 행복하면 평화로운 것일까? 조화로우면 평화로운 것일까?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는 것일까.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다. 남의 잘됨에서 행복을 맞보는 것이 참 행복이요. 평화인 것 같다.

**19일, 무등산**

푸르른 자연 속에서 풀벌레의 옴실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산을 올랐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일하시는 김인주님이 산 안내를 해 주셨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그 패기와 열정이 무척 강하셨다. 나도 저 나이쯤 됐을 때, 청소년들에게 맑은 힘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리를 다친 아이가 있어 함께 천천히 내려왔다. 다친 것이 너무 안됐지만 덕분에 여유롭고 편하게 내려올 수 있었다. 나무에 손을 얹어 숨결도 느껴보고 땅의 흙을 부벼 보기도 하고 큰 숨을 들이켜 풀 내음을

맡기도 했다. 모둠끼리 삼행시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20일, 무등산 ~ 5·18 자유공원**

녹색연합에서 나오신 분들의 도움으로 광주천의 물줄기를 따라오며 여러 가지를 배웠다. 조릿대로 만든 배는 어찌나 예쁘던지 평화캠프에 와서 이거 하나만 배워가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광주천 물 위로 배를 띄워 보내며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다짐을 했다.

YMCA로 가서 지난 5일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준비했다. 나는 똥글똥글 주먹밥을 말고 랩으로 쌌다. 캠페인 활동을 볼 때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다가 내가 직접 참여하게 되어 무척 기뻤다. 아이들이 말하는 '쪽팔림'도 느끼지 못했다. 그냥 너무 재미있어서 몸의 피곤을 훌훌 날려 버릴 수 있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의미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다.

**21일 마지막 날, 5·18 자유공원 ~ 집으로**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 평화란 자리가 넓어졌음을 느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이다. 함께 했던 이들이 있어 더욱 그렇다. 마음 속에 평화가 있으면 미소가 흐른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또한 행복의 일부임을 알고 평화롭게 살아야지. 마음에 평화를 담았으니 몸에서도 실천이 있어야겠다. 평화의 향기가 퍼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고 싶다. 캠프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지나간다. 그들과 나의 평화를 기도한다.